



+ 기쁨~*

사랑하는 수녀님들, 안녕하세요. 에콰도르 베드로 카르보 마을의 특수 초등 교육 기관인 이네셈에서 교무관련 사도직을 하고 있는 박인영 수녀입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의 업무인데요, 특수교육의 불모지인



2018 이네셈 학생들과

이 곳 에콰도르에서, 기본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교육기관을 운영해 가는 데 필수적인 교무 행정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언어를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닌 관계로 처음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남의 나라 언어로 전공도 아닌 일의 전문가로 일을 해야 한다니.....하지만, 이 곳에서 산 지도 벌써 꼭 채운 5년째가 되었습니다.



2011년 성모유치원

저는 이 곳 에콰도르에서 살면서 하느님께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결코 허투루 버리게 두지 않으신다는 만고의 진리를 아주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수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쌓아 온 교사로 또 기관장으로서의 10여년의 경력은 특히 제가 이 곳에서 살아가는 데에 좋은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전 세계가 들썩이던 해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수도생활이 올해로 16년째이니 청년기에 해당하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이지요. 그 동안 저는 피정집-어린이집-본당-유치원-공부 사도직들을 해 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사도직 안에, 때론 공동체 안에, 또 때론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덕에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성무일도 후 바치는 요일기도에 '하느님 현존의 표시인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하는 기도는 저의 수도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루는 시간들이, 공간들이, 일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임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저로 인해 '와해되는 순간'은 없는지 성찰해 봅니다.



2009 목포 연동



2013 키토 여학연수



2018 에콰도르 교황대사님과 함께



+ Joy

Hello sisters! I am Sister Park, In Young. I'm in charge of school affairs and student activities in INESEM School, an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institute at Pedro Carbo in Ecuador. I am responsible for seeking ways to



With INESEM students in 2018

manage the school. I also support and manage teachers, staff and students. Schoo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s necessary to run an educational institute. However, the reality that I am facing is that I am working with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basics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Ecuador “a wasteland of special education.” I think that this current situation is more difficult than learning a new language and living in a new culture. At first, I didn't know how to do my work because my major is not special education. I had to work as a specialist in a foreign language even though this is not my major field. However, it has been almost five years since I came here.



St. Mary Kindergarten in 2011

In Ecuador, I strongly realize the truth that God never wastes what I went through. Before entering the community, I majored in child education. I worked as a teacher and a director of an institution for 10 years. The experiences have become a stepping stone in my life.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2002 when the Korea-Japan World Cup fever heated up all over the world. This year is my 16th year of religious life which I believe is an energetic stage of young adulthood. I worked in different ministries such as a childcare center, a parish and a kindergarten and I also studied. So, I lived with many sisters in the various communities. I sometimes had difficulties in my ministry, community or family but I could go through everything because the love of God embraced all and always stayed with me.

The heart of my religious life is on the community intention on Thursday “may people everywhere come to the unity which is the sign of your presence.” I believe that God called me to make an effort to come to unity in the time and space that I belong to. Today, I look back on my daily life to see if there is a divisive moment because of me.



Yeon-dong parish in 2009



Language training at Quito in 2013



With Apostolic Nuncio in Ecuador in 2018